

‘벼랑끝’ 슈틸리케호…본선 직행 우즈베크전에 달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을 우즈베크전을 하루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슈틸리케 감독이 14일 오후 파주NFC에서 훈련 도중 시계를 보고 있다.

오늘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이정협 원톱 출전·공격수 황희찬 부상에 시름

러 월드컵 표 최종예선 5차전

한국 축구대표팀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주요 공격 자원으로 꼽히는 황희찬(잠츠부르크)이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14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우즈베키스탄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이 13일 훈련을 하다가 왼쪽 허벅지 근육을 다쳤다”라면서 “황희찬을 우즈베키스탄전에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황희찬은 소속팀에

있을 때부터 허벅지 근육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어제 러닝 훈련을 하다가 통증을 느껴 스스로 훈련장에서 나왔다”라고 부연했다. 황희찬의 전력 이탈로 대표팀은 이정협(울산), 김신욱(전북)으로 원톱 자원을 꾸리게 됐다. 황희찬의 낙마는 뼈아프다. 그는 11일 캐나다와 친선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기대를 높였다. 발동을 다친 이정용(크리스탈팰리스)의 출전도 알 수 없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늘 팀 훈련 때 이정용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우즈베키스탄전 출전 명단을 짜겠다”라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캐나다전과 우즈베키스탄전을 대비해 총 25명의 선수를 소집했다. 이 중 2명은 우즈베키스탄전에 교체선

수로도 참여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전 결장 선수는 황희찬과 이정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슈틸리케 감독은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전에 관한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현재 위기에 놓인 것이 사실”이라며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하고 행동하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던 골키퍼 권순태(전북)에 관해선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지 못했는데, 이 선수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을 평가해달라는 말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5경기를 모두 분석했다”라며 “대승 혹은 대패가 없었다. 수비력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공략하기 위해선 공격할 때 모든 선수가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며 “수비에선 선수 간 간격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두산 니퍼트 KBO리그 MVP

2016 시즌 최고의 선수로

‘타격 3관왕’ 최형우 제쳐

신인상 넥센 투수 신재영

두산의 2연패를 이끈 ‘투수 3관왕’ 더스틴 니퍼트(35)가 2016시즌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중고 신인’ 신재영은(27·넥센)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니퍼트는 1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MVP·신인상 및 부문별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고 선수가 됐다. 니퍼트는 프로야구 취재기자단 투표 결과 총 642점을 얻으며 ‘타격 3관왕’ (33·삼성) 최형우를 제치고 2016년 정규시즌 MVP 트로피를 차지했다. ‘한국 6년차’ 니퍼트는 올 시즌 167.2이닝을 소화하며 2.95의 평균자책점으로 22승 3패(승률 0.880), 142탈삼진의 기록을 작성했다. 그는 NC와의 한국시리즈에서도 1차전 선발로 나서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두산은 니퍼트의 승리를 시작으로 4차전까지 내리 가져오면서 한국시리즈 2연패와 함께 21년 만의 정규시즌·포스트시즌 통합 우승을 이뤘다. 평균자책점·승리·승률부문 상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던 니퍼트는 MVP로 호명되면서 시상식 마지막 무대까지 장식했다. 2011년 윤석민에 이후 5년 만에 투수

MVP 계보를 이은 니퍼트는 1998년 우즈(OB), 2007년 리오스(두산), 2015년 테임즈(NC)에 이어 외국인 선수로는 4번째로 MVP에 등극했다. 타율 0.376, 안타 195개, 144타점으로 ‘타격 3관왕’에 오른 최형우는 데뷔 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지만 니퍼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인상의 영광은 넥센의 ‘깜짝 스타’가 된 신재영에게 돌아갔다. 신재영은 1위표(5점) 93장 중 90장을 싹쓸이하는 등 465점 만점에서 453점을 획득했다. kt와 넥센의 고졸 2년차 주권(21)과 박주현(20)이 각각 147점, 81점으로 뒤를 이었다. 신재영의 수상으로 2008년 최형우부터 9년 연속 ‘중고 신인’이 신인왕을 차지하게 됐다. 신재영은 2012년 NC의 8라운드 69순위 지명을 받은 데뷔 5년차 ‘중고 신인’. 2013년 넥센에 트레이드된 신재영은 2014·2015년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한 뒤 올 시즌 처음 1군에서 기록을 남겼다. 뒤늦게 1군 데뷔전에 나선 신재영은 3.90의 평균자책점으로 15승7패를 찍었다. 다승 부문 공동 3위, 평균자책점 7위에 오르며 최하위 후보였던 넥센의 정규시즌 3위에 큰 역할을 했다. 신재영은 168.2이닝 동안 단 21개의 볼넷을 내주는 데 그치며 100이닝 이상을 소화한 35명의 투수 중 가장 적은 볼넷도 기록했다. 한편 각 부문별 시상식에서는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KIA 출신의 박정수가 퓨처스 북부리그 최다승(11) 주인공으로 단상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더스틴 니퍼트(오른쪽)가 1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MVP·신인상 및 부문별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신인왕을 수상한 넥센 신재영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구단 중 평균 연봉 최고 팀은?

NBA 클리블랜드 96억원 1위

전 세계 스포츠 구단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팀은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은 654만 파운드(약 96억원)였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팅인텔리전스는 14일 전 세계 7개 종목 17개 리그의 333팀 약 1만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연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연봉 2위는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로 582만 파운드(약 85억7000만원), 3위는 NBA LA 클리퍼스로 579만 파운드(약 85억3000만원)였다. 4위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차지했다. 지난여름 폴 포그바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등을 영입한 맨유는 평균 연봉이 577만 파운드(약 85억원)로 축구 구단 중 가장 높았다. 5위는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565만 파운드(약 83억원)를 기록했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12개 팀 중 8개

는 NBA에서 나왔고, 3개는 축구, 1개는 야구였다. NBA가 새로운 중계권 협상으로 연봉이 치솟았고, 프리미어리그는 브렉시트 효과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평균 연봉 순위는 NBA 구단들로 채워졌다. NBA 최고 연봉 선수는 ‘킹’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로 2450만 파운드(약 361억원)를 받았다. NBA 연봉 공동 2위는 2100만 파운드(약 309억원)를 받는 알 호퍼드(보스턴), 케빈 듀랜트(골든스테이트), 제임스 하든(휴스턴), 마이크 콘리(멤피스), 러셀 웨스트브룩(오클라호마시티), 데마르 데로잔(토론토)이었다. 축구 선수 중에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메시가 1898만 파운드(약 279억원)로 선두였다. 가레스 베일(레알 마드리드)이 1820만 파운드(약 268억원)로 3위, 힐크(상하이)가 1664만 파운드(약 245억원)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한국 고교야구팀 70개 시대

청담고 71번째 창단…KBO 학생야구 활성화 결실

한국야구 사상 처음으로 고교야구팀 70개 시대가 열렸다.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가 리그의 뿌리가 되는 아마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초·중·고 야구팀 창단 지원사업이 결실을 본 덕이다. KBO는 지난달 3일 경기도 부천 진영정보고등학교에 이어 14일에는 경기도 평택 청담고등학교에 야구부를 창단했다. 진영정보고는 70번째, 청담고는 71번째 고교야구팀이다. 이로써 한국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70개 고교야구팀 시대를 맞이했다. KBO는 애초 2020년까지 전국 고교야구 70개 팀 보육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달성했다. KBO는 2012년부터 새롭게 창단하는 아마 야구팀에 3년간 초등학교

3000만원, 중학교 1억5000만원, 고등학교 4억원 등을 지원해왔다. 재원은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 매출액 10%와 포스트시즌 이익금의 15%, 프로야구 제9·10구단인 NC 다이노스·케이티 위즈의 야구발전기금으로 마련했다. 그 결과 창단 지원사업 시작 당시 53개였던 고교 야구부는 청담고의 창단으로 4년 만에 18개나 늘어났다. 중학교 17개, 초등학교 5개 야구부도 KBO의 지원을 받아 창단됐다. KBO는 창단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 초·중·고 야구팀에 KBO 리그 선수 출신 육성위원들을 순회코치로 파견해왔다. KBO는 “앞으로도 물질, 인적 지원을 병행해 KBO 리그의 근간이 되는 아마야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